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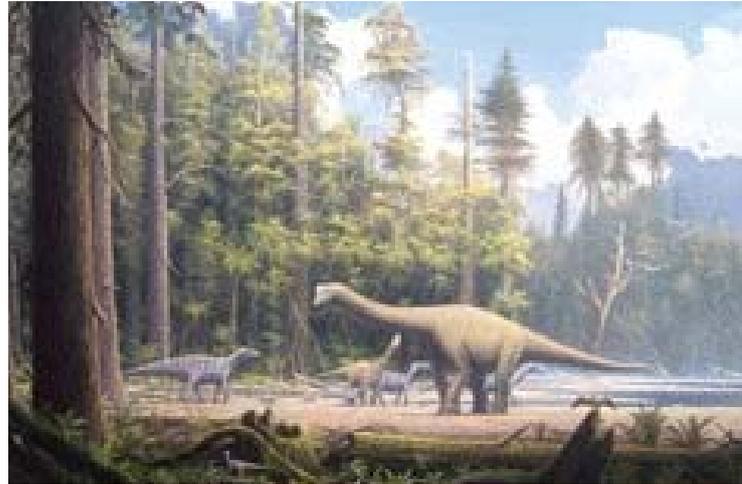


창조과학과  
복음 변증,  
그리고 교회 교육

창조과학은 흔히 “진화론에 반대하는 기독교 과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이 요구된다. 1) 창조과학이 단지 진화론에만 반대되는가? 2) 창조과학이 과연 기독교 과학인가? 3) 창조과학이 정상과학인가?

먼저 창조과학이 진화론에만 반대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창조과학이 진화론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 진화한다는 것은 생물학의 상식이다. 따라서 창조과학은 진화론뿐 아니라 생물학 전체와도 상당 부분 대립한다. 한편 창조과학은 지구의 나이를 1만 년 이내로 짧게 보고 있는데, 이는 지질학적 연대와도 맞지 않는다. 창조과학은 그랜드캐년이 약 5천 년 전, 1년가량 지속된 노아 홍수 때에 급격히 만들어졌다고 본다. 반면, 지질학은 약 18억 4천만 년 전부터 서서히 쌓여온 다양한 지층이 융기된 후, 약 5~6백만 년 전부터 침식되어 형성된 것으로 본다. 또한 물리학은 우주의 탄생을 약 138억 년 전에 발생한 빅뱅이론으로 설명한다. 화학 시간에 배운 원소 역시 빅뱅의 산물이다. 이는 우주가 약 1만 년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창조과학과도 대치된다. 결국 창조과학은 기본적으로 현대 과학 전반과 대립관계에 있는 셈이다.

창조과학은 단지 과학과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이미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서 구석기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세계사에서는 300만 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50만 년 전의 호모 에렉투스, 20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을 언급한다. 이 또한 인류가 약 6천 년 전 아담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창조과학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이처럼



창조과학은 역사학은 물론 인류학, 고고학과도 일정 부분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창조과학이 이렇듯 현대 주류과학은 물론 역사학, 인류학과 같은 인문학과도 대치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다. 하나님이 약 1만 년 전, 단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기사를 문자적,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과학 입장에서는 현대 과학이나 역사학 등에서 언급하는 1만 년 전 이전의 사건이 모두 허구가 된다.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는 주장도 거짓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연중에 창조과학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 대부분이 빠르면 유소년기, 즉 공룡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부터 늦어도 과학과 역사를 배우는 시점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교회에서 배운 내용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크리스천 교사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쥬라기 공룡’은 다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야 할까? 진화도, 빅뱅,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한반도 구석기 유적도 다 학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기독교



**이택환** 그소망교회 담임목사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였고, 2002년부터 11년간 한국누가회(CMF) 학사/학원사역부 간사를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비과학계위원 및 운영위원, 한국 톨라이트 북클럽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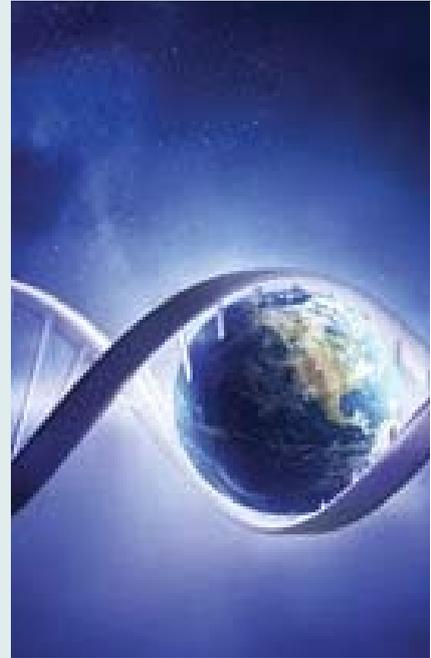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답을 쓰지 말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점수를 따기 위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쓰라고 해야 할까? 단지 진화론에 국한된 문제라면 통제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혼란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과학 전반과 국사, 세계사는 물론 인문학 및 일반 상식에까지 이르기엔, 사실상 손을 쓸 수가 없다. 차라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다 믿지 말아라!” 외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신학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은 곧 기독교 과학”이라고 알고 있기에, 당연히 신학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일부 근본주의 신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학에서는 창조과학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천 역사가 마크 놀은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에서 일종의 ‘지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주의 신학에서 창조과학이 출현했다고 지적한다. 창세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은 성서신학, 그중에서도 구약성서학이다. 하지만 오늘날 창조과학자들이 신봉하는 창세기 1장의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는 구약성서신학자들은 거의 없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총신대 구약학과 김희석 교수는 “성경과 과학”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경은 과학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려 하지 말라. 짧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등등은 과학의 관점에서 토론해야 할 문제이며, 성경은 그러한 과학적 이론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만한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언어로 증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창조-타락-구속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렌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 과학적 토론은 기독교 과학자들에게 맡기자.” (요약)

창조과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한다 해도 성서신학자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전문적인 성서신학자들은 창조과학자들과 달리 창세기 본문의 과학적 해석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우주 만물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명, 안식의 중요성 등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에 집중한다. 따라서 우주 만물의 생성 순서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창세기 1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구약신학자는 없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지구가 태양보다, 심지어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출현한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창세기의 연대 계산을 근거로 우주의 역사가 1만 년 이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세기가 말씀하는 핵심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성서 해석 방법 중 하나는 성경을 장르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다. 장르가 무시될 때 성경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일어난다. 축구에 야구의 룰을 적용하거나, 야구에 농구의 룰을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창세기의 장르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학, 그분에 대한 신앙고백과 찬양, 선포, 시, 노래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가 역사 다큐멘터리나,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자연과학개론서가 아님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창조과학자들은 창세기 1장을 역사적 다큐멘터리나 자연과학개론서처럼 이해한다. 창세기의 문자 하나하나를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규정한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



왜곡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창조과학을 기독교 과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제 창조과학이 과연 정상적인 과학인가를 다룰 차례다. 과학자는 전문가다. 그런데 스스로 창조과학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작 해당 과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드물다.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과학자가 거의 전무하다. 대중 앞에서 주류 과학을 비판하며 창조과학을 전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공학자 아니면 의사다. 몇

년 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창조과학을 강의하며, 단시간에 진화론을 비롯한 천체물리학, 지질학 등 현대 과학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진화론은 소설이고, 연대측정은 엉터리이며, 우주의 성간거리 측정도 완전 허구라는 식이었다. 질문 시간에 자연과학 전문가도 아닌 강사가 현대 과학을 그렇게 폄하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지 물었다. 강사는 임의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레퍼런스가 있다며 양심적으

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강사는 같은 내과전문의라도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내분비내과 영역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것이 의사들이 생각하는 전문의들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다. 자신의 세부 전공이 아닌 학문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지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의사는 물론 학자들의 상식이다. 하지

만 창조과학자들에게 그런 상식이 없다. 만약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분야에 대해 논문 한 편 쓴 적도 없이, 지질학, 진화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 온갖 분야를 마음대로 폄하할 수 있다면, 일개 약사가 전문의의 처방을 비웃고 스스로 새로운 처방을 내린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창조과학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다. 사실 창조과학은 말이 과학이지 과학적인 방법론이 없다. 대중 강연에는 능하나 학술 논문에는 줄하다. 주류 과학을 비판하는 근거도 대부분 성경 말씀에서 찾는다. 그래서 정상과학이 아닌 유사과학으로 분류된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과학은 과학보다 차라리 신학, 그것도 ‘재앙적’ 근본주의/문자주의 신학의 야류에 가깝다.

이런 창조과학이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가득한 과학의 보고(寶庫)를 하나님 없는 세상에 내어주는 창조과학에는 그리스도 안에 만유를 통합하는 큰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 당장은 현란한 강의로 몇 명의 신자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창조과학에 물든 교회가 정상과학을 외면할수록 세상이 더욱 교회를 외면할 것이다. 이원론에 빠진 크리스천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세상 과학을, 교회에서는 창조과학을 따르다가 정신 건강을 위해 무수히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런 창조과학은 하나님을 이 세상과 무관한 초월의 영역으로 몰아내는 데 일조할 뿐이다. 전도의 길이 막힌다. 목사인 필자가 과학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는 있다. 간단하다. 교회가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면 된다. 목사가 신학교 성서신학 시간에 배운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 된다. 한마디로 “성경을 성경되게 하라!”가 답이다. ☺

